

‘숲’에서 악상을 길어 올린 클래식 작곡가들

더운 여름날에 나무들이 얹혀 만든 숲의 그늘은 피부로 다가온다. 서늘하게. 그래서 숲은 촉각의 공간이다. 숲은 나무들이 모여 군락을 형성하고 있는 지역이란 사전적 의미로만 단정될 수 없는 감성적 공간이다. 그곳은 도피와 은둔의 공간이며, 고독과 사색의 공간이자, 휴식과 충전의 공간이기 때문이다. 또한 ‘자연’이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우리의 뇌리에 가장 먼저 스쳐 지나가는 이미지이기도 하다.

클래식의 역사를 뒤져보아도 숲은 작곡가들의 산책로가 숨어 있는 공간이자 영감과 소재를 안겨주는 곳이기도 했다. 산책을 즐겼던 베토벤(1770~1827)이 많은 작품 구상을 나무로 우거진 산책로에서 했다는 사실은 유명하다. ‘전원(田園)’이라는 부제가 붙은 교향곡 6번은 난청이었던 그가 자연을 청각 외의 다른 감각들로 음미하기를 즐겼으리라는 추측을 해보게 하는 교향곡이다.

▶ 낭만의 숲

독일 가곡의 전통을 보면 베토벤부터 자연의 소재가 노래 속에 꽃피우기 시작했다. 자연물에 대한 감정이입은 베토벤 이후 슈베르트(1797~1828)로, 슈만(1810~1856)과 브람스(1833~1897)로 이어졌다.

영화 ‘파리넬리’(1994)의 감독으로 유명한 제라르 코르비오(1941~)의 또 다른 영화 ‘가면 속의 아리아’(1987)에서 노 스승과 소프라노 제자가 마차를 타고 숲을 거닐다 비를 만나는 장면이 나온다. 노 스승에 대한 사랑의 감정을 억누르지 못하던 여 제자는 마차에서 뛰어내려 비를 그대로 맞으며 숲속으로 도망치듯 사라진다. 그 장면에 흐르던 구스타프 말러(1860~1911)의 교향곡 4번 중 3악장은 비에 젖은 푸른 숲과 너무나 잘 어울린다. 브람스의 바이올린 소나타 1번에는 ‘비의 노래’라는 부제가 붙어 있는데, 이 곡을 들을 적에도 사랑과 숲과 비가 한데 섞여 있는 이 영화의 한 장면이 떠오른다. 마치 브람스가 비에 젖은 숲을 보며 감상하라고 작곡한 곡처럼 느껴질 때도 있다.

저녁 무렵에 제자는 노 스승에게 돌아온다. 그런데 노 스승을 사랑의 감정으로 바라보던 그녀는 비에 젖은 숲으로 뛰어 들어가 어떤 생각을 하다가 나왔을까. 노 스승은 창가에서 슈만의 가곡 ‘리더크라이스

(Liederkreis)’ 중 다섯 번째 곡인 ‘달밤’을 부른다. 곡이 그리는 달밤은 가수가 지닌 낭만적인 감성만으로는 그려내기 힘든, 상당한 기교를 필요로 하는 곡이다. 이 가사에도 숲이 나온다. “마치 하늘이 조용히 대지에 입맞춤하는 듯한 밤, 바람은 불어 풀은 물결치고, 숲은 은밀히 속삭인다.” 노래를 들으며 창밖에서 노 스승을 바라보던 여 제자의 뺨은 젖어 있던 빗물과 흘러내리는 뜨거운 눈물이 한데 섞여 있다.

▶ 공포의 숲

1977년부터 1989년까지 무더운 여름밤에 오싷한 냉기를 불어넣었던 드라마 ‘전설의 고향’의 시간적 무대는 ‘밤’이고, 장소는 대부분 숲이었던 것으로 기억한다. 종반부에는 늘 “이 이야기는 ○○도 ○○지방에서 전해져 내려오는 전설로…”라는 식으로 끝났던 드라마.

숲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두려움의 시공간이었다. 우리에게 동화로 알려진 ‘헨젤과 그레텔’은 독일의 야코프 그림(1785~1863)과 빌헬름 그림(1786~1859) 형제가 15세기부터 독일 각지에 퍼진 영아 살해 관련 민담을 모티프로 하여 지은 이야기다. 이 이야기의 배경 역시 숲이다. 버려진 아이들과 그들을 향해 식욕을 불태우는 마녀는 미로 같은 숲을 벗어나지 않는다.

그림 형제의 잔혹동화는 작곡가들에게 인기의 소재였다. 독일의 작곡가 옌겔베르트 뉘퍼딩크(1854~1921)는 ‘헨젤과 그레텔’을 토대로 같은 제목의 오페라를 작곡했다. 앞서 말한 말러는 그림 형제의 민화집에 수록된 ‘노래하는 뼈’의 이야기를 주축으로 ‘탄식의 노래’를 작곡했다. 이 이야기 역시 숲을 배경으로 한 비극적 동화다. 이야기에는 신비의 숲속에 피는 붉은 꽃을 찾아오는 사람과 혼례를 하겠다고 선언한 여왕, 붉은 꽃을 찾아 나선 형제, 아우가 꽃을 찾아내자 그를 죽여 버드나무 밑에 묻고 꽃을 강탈한 형, 아우의 뼈를 우연히 발견해 그것으로 살인의 전모를 노래하는 음유시인이 등장한다. 결국 혼례식에 참석한 음유시인이 여왕과 형 앞에서 플루트를 불어 살인의 전모가 밝혀지며 모든 것이 수포로 돌아간다는 이야기이다. 말러는 빈 음악원에 수학하던 17세 때 이 곡을 작곡했는데, 그는 숲을 살인과 공포의 기운이 가득 곳으로 바라보았던 것이다.

사속이의 斯速已矣, 하대내년 何待來年?

▶ 신비와 신성의 숲

숲은 신비의 공간이기도 하다. 오페라 작곡가로 유명한 베르디(1813~1901)가 셰익스피어의 희곡을 취해 작곡한 오페라 '맥 베드'는 초입에 마녀가 등장하는 숲을 어떻게 연출하느냐에 따라 작품 전체의 분위기를 좌우한다.

“하나의 교향곡은 곧 하나의 세계”라고 말한 말러. 그가 작곡한 교향곡 3번의 도입부에서 모든 악기는 제각각 소리를 내며 숲과 대지의 울음을 묘사한다. 그리고 3악장에서 숲의 짐승들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이야기를 오케스트라가 묘사하는데, 이는 숲의 정령들이 속삭이는 소리처럼 느껴지기도 한다.

동양사상은 숲속의 어느 것 하나도 인간이 함부로 할 수 없다는 물신관을 기본으로 한다. 어린이만을 위한 애니메이션이라 치부할 수 없는 미야자키 하야오(1941~)의 작품들 중에 ‘모노노케 히메’(1997) 역시 만화의 형식을 빌려 이러한 철학을 이야기한다. 무엇보다도 이 작품은 작곡가 히사이시 조(1950~)의 음악으로 그 숲을 더 신비롭게 영상화한다.

▶ 악기와 음악을 선물한 숲

생각해보면 서양의 현악기와 목관악기들 모두 모두 숲에서 나온다. 영화 ‘레드 바이올린’(1998)이 특정 인물보다는 바이올린의 여정을 통해 음악과 인간의 이야기를 전했던 것처럼, 숲과 그 속의 나무는 죽어서 인간에게 악기와 음악을 선물한다. 숲과 나무가 없다면 인간에게 음악도 울림도 없는 것이다.

작곡가들에게 영감의 원천지가 되었던 숲은 현대인들에게는 휴식의 쉼터가 된다. 여름이 가기 전에 숲속에 가보자. 조용한 그곳에서 이어폰을 귀에 꽂고 조용히 걸어보면 아마 오션지에 그릴 수는 없다고 해도 자신만의 악상이 떠오를 것이다. 그곳은 낭만과 신비, 혹은 공포가 가득한 신비한 초록색 시공간이기에.

사람은 늘 불안한 상태에서 선택을 한다. 예컨대 스포츠에서 상대방의 작전을 파악하면 좋겠지만 그러기가 쉽지 않다. 상대도 자신의 작전을 감추고 나의 작전을 파악하려고 노력하기 때문이다. 적시에 작전을 걸면 성공하겠지만 조금 일찍 또는 늦게 승부수를 던졌다가 실패하곤 한다. 이처럼 적시의 선택은 잘 하기도 어렵지만 선택한 대로 진행하기도 어렵다. 마음이 서더라도 승패를 알 수 없으니 주저하기 마련이다.

맹자는 세금을 낮추고 관세를 폐지하자는 주장을 펼쳤다. 그래야 국민들의 부담이 줄어들고 경제가 활성화되리라 보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송나라 대부 대영지(戴盈之)는 맹자의 제안이 타당해보이지만 기존의 정책을 당장 폐지하려니 ‘정책의 충격’을 완하시킬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이를 위해 대영지는 먼저 세액을 줄이고 1년의 경과 기간을 그친 뒤에 맹자의 제안을 실현하려고 했다.

맹자는 대영지의 의견을 듣고서 재미있는 이야기를 생각해냈다. 어떤 사람이 이웃집의 닭을 매일 한 마리씩 훔쳤다. 어떤 사람이 도둑에게 “도둑질은 군자가 할 도리가 아니다”라고 충고를 했다. 도둑은 충고를 듣고서 다음처럼 말했다. “훔치는 숫자를 줄여 한 달에 한 마리씩 훔치겠습니다. 그리고 1년이 지난 뒤에 닭 훔치기를 그만두겠습니다.” 참으로 도둑의 발상은 귀엽기까지 하다.

맹자는 이 이야기를 하고 난 뒤에 자신의 생각을 전했다. “만약 자신의 하는 일이 옳지 않다는 것을 알면, 한시라도 빨리 그만두어야지 무엇 때문에 내년을 기다려야 할까요?”(여지기비의如知其非義, 사속이의斯速已矣, 하대내년何待來年?)

우리는 판단을 내리고서도 결행을 하지 못하고 차일피일 하다가 시간을 놓치곤 한다. 맹자는 미루고자 하는 마음을 과감하게 싹둑 잘라서 당장 결별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